

한 전시관에 같은 작품 두 곳 전시

개막 14일째를 맞은 18일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7만8천여명의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행사의 성공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짜임새 있는 진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시와 행사 내용에서 '옥의 티'가 발견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본 전시의 경우 한 공간에서 똑같은 작품을 별도 부스에 나눠 중복 전시함으로써 신선한 작품을 기대하는 관람객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실제 본 전시 휴먼존(Human Zone)에는 'OLPC(One Laptop per Child)'가 각각 유리로 제작된 전시부스와 열린 공간에 별도 전시돼 있다. 'OLPC'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 제작한 100달러짜리 컴퓨터.

두 곳에 있는 작품이 동일하지만 유리부스에는 'Community089-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옥의 티'를 찾아라

'차단봉' 관람 저해... 일부 전시 입구 막아 작품 못봐 남도디자인 자산전 지도 광주 위치 잘못 표시

OLPC'라는 이름으로, 다른 하나는 'OLPC-모든 이들에게 컴퓨터'를 주제로 설치돼 전시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작품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비엔날레 재단이 전시공간 곳곳에 설치한 차단봉도 관람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작품을 보호함과 동시에 관람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작품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전시공간 진입 자체를 차단, 정작 내부공간에 설치돼 있는 작품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본 전시관 '변화의 빛' 코너에 있는 '스튜디오 엔과에자'의 작품은 차단봉 때문에 3개의 작품 밖에 관람할 수 없다. 전시공간 안에는 볼펜으로 만든 상들리에인 '볼리빅347' 등 모두 6개의 작품이 설치돼 있지만, 입구를 차단하는 바람에 상들리에에 3개 밖에 볼 수 없는 것. 이때문에 관람객들은 내부에 있는 '랩플랜트' 등 3개의 조형 작품은 놓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 일러스트레이션'(포스터)전은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

의 시각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중국의 경우 이념 지향적인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폭넓은 감각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 '남도디자인 자산 100선'전에 출품된 작품 가운데 '고지도 응용 우리 광주관광지도'는 광주시 공공기관의 위치가 잘못 표기돼 외지인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이 지도에는 광주시립미술관의 위치가 광주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는 "OLPC의 경우 관람객들이 작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 전시한 것일 뿐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행사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완벽한 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에 정의진씨

어제 성황리 폐막

18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내린 제15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에서 정의진(60·서울시 종로구 익산동)씨가 영예의 대통령상(상금 1천500만 원·부상 금 100만)을 수상했다. 지난 16일부터 3일간 계속된 이번

행사에는 9팀 257명이 참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정씨 등 모두 60명이 수상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반·명창부)
 ▲최우수상=김현주 김승호 이은진 윤해동누리 윤미애 이영희 고분도리농악
 ▲우수상=양은희 선진영 안정옥 이화은 임재현 마복농악 ▲준우수상=김지현 이

현정 류기양 박영순 김수진 정승농악(학성부)
 ▲금상=박형주 박초희 신혜인 오준희 이초록 김용성 ▲은상=박수형 김소연 김은강 최희웅 정은영 박지연
 ▲동상=이선미 한시형 전승연 황다솔 김나영 김한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버지게 배운 소리로 상 받아 더 감사"

제15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정의진(60·사진)씨는 지난 2003년 작고한 양암 정광수 명창의 딸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나주 출신인 정광수 명창은 1964년 '춘향가'로 관소리계 최초의 인간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관소리 예능보유자)가 된 인물로 1974년에는 '수궁가'로 예능보유자가 됐다. 정씨는 이날 경연에서 아버지에게서 배운 '수궁가' 중 '약성가' 부분을 불러 상을 받았다.

"큰 상을 받게 돼 더 없이 기쁘요.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소리로 상을 받게 돼 더 없이 감사합니다. 이근영·나원진·차민아·윤경윤·조현영·조혜원씨 등이 참여한다.



고 제자들도 걸러낸 겁니다." 관소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17살에 처음 소리를 시작해 정승민 선생에게 '춘향가' 등을 배운 정씨는 32살까지 관소리를 배우다 결혼과 함께 소리 세계를 떠나 전업

주부로 살아가고 있다.

정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소리관으로 돌아왔다. '정광수 수궁가 이수자 1호'인 자신이 아버지의 소리를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목으로만 부르는 소리와 달리 아버지의 소리는 단전 성음이에요. 아버지의 고제 법통소리는 일반인이 알아 듣기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우리 옛것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정씨는 2006년과 2007년 전주 대사슴에서 관소리 명창부 차상을 연속 수상했으며 현재 '양암 정광수 국악 추모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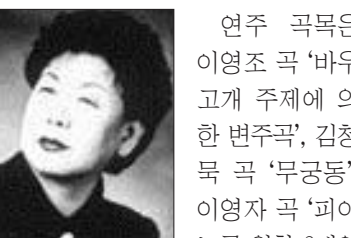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 전시 휴먼존(Human Zone)의 출품작인 'OLPC'가 유리로 제작된 전시부스(왼쪽)와 열린 공간에 중복 전시된 전시의 신선감을 떨어뜨린 디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작성기자 jrvi@kwangju.co.kr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정기연주회

2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김선자) 전담 교수·사진) 제 31회 정기 연주회가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한국 작곡가의 피아노 작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는 장훈화·이근영·나원진·차민아·윤경윤·조현영·조혜원씨 등이 참여한다.



연주 곡목은 이영조 곡 '바우 고개 주제의 한 변주곡', 김청목 곡 '무궁화', 이영자 곡 '피아노를 위한 8개의 변주곡' 임마야 누나야, 김정수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자이크'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아암 어린이 돕기 음악회

내일 화순 만연사

화순 만연사 자선음악회가 20일 오후 7시 만연사 경내에서 열린다. 소아암 어린이 돕기 행사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범능 스님이 '어머니의 손' '추아름' '꽃아 꽃아' 등을 들려주며 국악 실내악단 황도제, 만연사 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374-21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위작 없애려면 감정 선진화돼야" 들뜬 나뭇가지 '삶이 스미는 풍경'

한국미술품감정위 보고서

2005년 3월 위작사비에 휘말렸던 이종섭, 박수근 화백의 그림 2천800여점이 모두 위작이라는 검찰의 결론에 대해 미술계는 "그동안의 중간 수사 발표로 일찌감치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위작이 유통돼 미술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으려면 미술품 감정시스템 선진화가 급선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감정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위작이 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기초자료가 되는 전작도록(카탈

로그 레조네)을 만드는 등 전문가의 안목에만 의존하는 감정 관행을 바꿔 자료와 기록에 근거한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초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한 한국미술품감정발전위원회(위원장 이규일)가 내놓은 '한국 미술품 감정 현황과 주요 실태'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화랑협회 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서양화를 감정한 결과 이종섭은 위작작품 중 75.7%가 위작이고, 이인성은 55%, 박수근은 36.6%, 도상봉은 33%, 오지호는 28.4%가 위작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신세계 미술제 수상 표인부름

22일부터 광주 신세계갤러리

제9회 신세계 미술제 수상작가인 표인부씨가 22~31일까지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표씨는 이번 '삶이 스미는 풍경'전에 동·서양의 재료를 혼합, 자유분방한 붓터치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의 소재가 된 들뜬나뭇가지는 흑백사진에 흥미하게 남겨진 흔적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거늘고 거친 선으로 형태를 알 수 없게 표현되기도 한다. 조진대 미대를 거쳐 중국 남경예술대학 미술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삶이 스미는 풍경' 광주 판화가 협회, 'L·M·N'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성민우회 "집사람 대신 배우자라고 불려요."

"집사람 대신 배우자라고 불려요." 한국여성민우회는 가족 구성원 간 평등한 호칭문화 만들기 운동인 '호락(樂)호락(樂)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초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 민우회는 '집사람

대신 배우자라는 말 쓰기를 실천 방안으로 제안했다.

민우회는 "'집사람'이나 '안사람'은 '바깥 양반'과 짝을 이루는 말로 여성은 집에 있는 사람, 남성은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성 역할을 응어 속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집사

람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민우회는 "배우자는 익숙하고 그의 미가 잘 알려진 말로 부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며 부부가 서로를 지지하는 말로 '배우자'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영화안내

<h3>메가박스</h3> <p>구.런던막사거리 ♥메가1544-0600</p> <p>M관 바르게살자(1544) 최고급판</p> <p>2관 궁녀(1844)</p> <p>3관 나.디.아.리(1244)/러시아워3(1544)</p> <p>4관 행복(1544)</p> <p>5관 레지던트아일랜드3(1844)</p> <p>6관 비커링제인(1244)/브레이브원(1544)</p> <p>7관 카핑 벤토벤(1244)</p> <p>8관 어께너머의 연인(1844)</p> <p>9관 바르게살자(1544)/궁녀(1844)</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h3>엔터 시네마</h3> <p>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빛고래·문회의 수도 엔터테인먼트 연인과 가족의 오붓한 문화공간</p> <p>내가 엔터시네마를 찾는 이유...</p> <p>저의 취미는 말하건대 남들 더 맛있는 것과 같이 영화관람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아야 재미있고 여기는 저의 생활수칙 때문에 영화관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집에서 가까운 주변 영화관이 안가고 광주 엔터시네마에 가는 이유가 영화제에 관한 출입을 할 수 있어서입니다.</p> <p>다른 영화관에 가면 보지못한 사람들도 볼리고 스텝도 배우들이 스타에게 되어 영화관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엔터시네마를 찾았을 때는 저의 불편한 점을 읽음에 해결해주고있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티켓매각 직원 덕분에 영화보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p> <p>또한 엔터시네마 내부전체기 내부 개장에서 중요하며, 이젠 장려금 사적 감성으로 모두 3시간 무료 엔터시네마가 있어서 저는 늘 영화를 보러 올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 직원인 김민지 *</p> <p>★주요작이 헌한 극장 http://www.entr-cinema.co.kr *</p>	<h3>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h3> <p>상무점 (상무병원과 마티드 사이) 해남점 (무척병원앞편)</p> <p>1관 행복(1544)</p> <p>2관 카핑 벤토벤(1244)</p> <p>3관 궁녀(1844)</p> <p>4관 궁녀(1844)</p> <p>5관 러시아워3(1544)/비커링제인(1544)</p> <p>6관 레지던트아일랜드3(1844)</p> <p>7관 사랑(1544)/바르게살자(1544)</p> <p>8관 권선불에서 날치사건(1544)/브레이브원(1544)</p> <p>9관 어께너머의 연인(1844)</p> <p>10관 바르게살자(1544)</p> <p>*호남 최대 주차장 *메입삼야 상영합니다</p> <p>콜롬버스점(10:00) 1588-7941 점심 상영점 상영시간별 방문 -11월 21일 -연</p>	<h3>씨너스 전대</h3> <p>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레지던트아일랜드3(1844)</p> <p>2관 행복(1544)/가깝잖아 사랑해요(1844)</p> <p>3관 궁녀(1844)</p> <p>4관 브레이브원(1644)/러시아워3(1544)</p> <p>5관 비커링제인(1244)/카핑벤토벤(1244)</p> <p>6관 어께너머의 연인(1844)</p> <p>7관 바르게살자(1544)</p> <p>*매일삼야 상영합니다*</p> <p>*무로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녹차 사무나(모닝-캐비네)</p> <p>ARS 전화예약 1544-0070</p>	<h3>무등극장</h3> <p>충장로 1가 ☎ 232-9106</p> <p>1관 러시아워3(1544)</p> <p>2관 사랑(1544)</p> <p>3관 궁녀(1844)</p> <p>4관 어께너머의 연인(1844)</p> <p>5관 바르게살자(1544)</p> <p>6관 행복(1244)</p> <p>7관 카핑벤토벤(1244)/브레이브원(1244)</p> <p>8관 비커링제인(1244)/브레이브원(1244)</p> <p>9관 레지던트아일랜드3(1544)</p> <p>*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p> <p>*입금식 할인혜택 위한 전용휴머민 *편의점의 기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p> <p>인터넷 예약 문의 1588-9101</p>	<h3>제일 시네마</h3> <p>충장로 3가 ♡ARS 전화예약 227-1960♥</p> <p>1관 궁녀(1844)</p> <p>2관 어께너머의 연인(1844)</p> <p>3관 행복(1544)</p> <p>4관 바르게살자(1544)</p> <p>5관 레지던트아일랜드3(1844)</p> <p>6관 러시아워3(1544)/브레이브원(1544)</p> <p>*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무로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약 문의 227-1960</p>
--	---	--	---	--	---